

베냉 기도편지 Vol. 22.



1. 피드로세 교회 성탄선물 나눔



저희가 사는 마을의 아이들과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온 가족이 함께 성탄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2022년 성탄절에 선물을 나눠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알려줬는데, 그 후 마을 아이들은 저희 부부를 볼 때마다 늘 “Jésus est né !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를 외쳐 주었지요. 2023년 성탄절은 그 동안 교제를 쌓아온 피드로세 교회와 함께 나눔을 진행하였습니다. 선물은 우리가 준비할 테니 교회는 장소 제공과 설교를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는 인근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명단까지 작성하셔서 모아 주셨고,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붙잡고 교회 문턱을 넘어왔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함께 부르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고, 한 명씩 나와서 기다리던 선물을 받아가며 해맑게 웃는 아이들을 보며 우리 가족 모두 감사로 마음이 풍성해졌습니다. 명단에 이름이 없지만 교회에 온 아이들이 있어서 추가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165명의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2. 바깥교회 성경강좌 및 kokobe 와 Terrain guru 교회 방문



성탄절과 연말연시로 떠들썩한 시기에 파라쿠로 떠나기 위해 저희 가족은 다시 집을 꾸렸습니다. 지난 2023년 4월에 바깥교회에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성경강좌를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도 교회의 요청으로 일정을 조율하다가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두 번째 성경강좌를 진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를 시작으로 사무엘까지 살펴봤고 사탄과 귀신들의 정체와 그들이 하는 일을 특강으로 다루며 강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이 강의내용을 반복해서 듣고 싶다고 요청 하셔서 준비한 교안 이외에 강의내용 전체파일을 목사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2 주간의 크리스마스 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친구들도 만나며 나름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텐데, 함께 성경강좌 일정에 동참해주어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다가오는 4월에는 세번째 성경강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때는 역사서와 선지서를 연대기순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담임목사님께서 본교회와 지교회 임직자 교육도 부탁하셔서 별도의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강좌를 마치고 맞이한 주일에는 예전부터 방문하고 싶었던 교회 두 곳을 느헤미야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저희 부부가 함께 방문했습니다. 베냉에는 담당 교역자를 구하기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짜교회의 전도로 개척한 교회들 중 꼬꼬베 교회와 떼렝구루 교회도 바짜교회의 집사님들이 파송 받아 섬기는 자매교회들입니다.

두 교회는 우기가 되면 불어난 물로 길이 끊겨 3개월 이상 외부와 왕래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기가 아니면 방문할 수 없기에 1년 가까이 기다려서 방문을 했습니다.

위치상 꼬꼬베교회를 먼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한 후 떼렝구루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길이 상당히 험하고 건기라서 먼지가 많아 순탄치 않았습니다.

흙 길을 3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떼렝구루 교회는 어느 지점부터는 차량통행도 어려워 차를 맡겨 두고 마중 나오신 성도님들의 오토바이로 1시간 정도를 이동한 후 교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꼬꼬베와 떼렝구루교회 모두 어느 NGO에서 우물을 파주었으나, 안타깝게도 떼렝구루 교회의 우물은 진흙으로 막혀서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우리가 오토바이로 건넌 폭이 좁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까지 30분을 걸어 와 물을 떠서 생활하고 있었기에, 항상 물이 귀하고 위생이 걱정되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준비해 주셨는데, 식수로 주신 물은 끓였다고 하지만 매우 탁하고 검었기에 마시지 못하고 음식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건기라 이 정도는 깨끗한 물이라서 마실 수 있지만 우기가 되면 물 상태는 더 안 좋아진다는 말씀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떼렝구루교회에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 교회 옆에 다시 우물이 준비되어 마을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나누어 주고 생수의 근원되신 하나님의 말씀도 나눌 수 있길 소망합니다.

3. 아조홍 침례교회 주최 여성청소년들과의 대담



교과서 나눔을 했던 아조홍 침례교회 레위목사님께서 지역의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간담회에 저희 부부를 초대해 주셔서 중고등학생 자매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엄격한 가부장제로 인한 가정폭력, 자녀 방임, 가난으로 교육기회 박탈, 자녀들의 탈선, 어린 나이에 유부남과 강제 결혼 등등. 처음에는 어려워하며 말을 꺼내기 주저하던 아이들은 한 두 명 이야기를 시작하자 각자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나 장신구를 사주는 남자들과 쉽게 어울리며 임신을 하는 경우는 더 이상 마을에서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은지선교사는 생리대 나눔을 하며 위생과 성결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베냉의 깨어진 가정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인지하고, 앞으로의 교육의 방향을 잡아가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Perles rares(귀한 진주) 위생 성결교육 진행



베냉의 어린이전도협회를 통해 알게 된 ‘빠를 라르(귀한 진주)’ 여성청소년센터의 센터장님의 부탁으로 센터에 등록한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위생성결교육과 생리대나눔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예미씨 센터장님은 베냉의 어린 소녀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양육을 받지 못해서 잘못된 성경험으로 임신, 출산 혹은 낙태시술로 목숨을 잃는 사례들을 보며 어린 소녀들을 모아 복음전도, 학습지도 그리고 성교육을 통해 바르게 자라길 원하는 마음으로 센터를 여신 분입니다. 그러나, 정작 올바른 성교육을 하기에 준비가 부족하다 느끼셔서 박은지선교사에게 강의를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40여명의 아이들에게 위생청결교육과 성결교육을 마치고 면생리대를 나누어 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은지선교사가 성경적인 성결교육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는데, 잘 준비하여 베냉의 여성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5. 지훈이 고 2 진학과 헤민이 중학교 졸업시험

큰아이 지훈이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언어가 원활하지 않아 수업 내용이 매끄럽게 이해되지 못하기에 종종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 1 마지막 학기에 최선을 다하여 2학년으로 무사히 진급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둘째 헤민이는 3월에 중학교 졸업 모의고사와 6월에 본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개의 시험성적이 모두 최종결과에 반영됩니다. 공부할 때 꼼꼼히 준비하여 졸업시험을 잘 치러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막내 요한이는 다정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친구들을 두루 만나고 있습니다. 세 아이 모두 온라인으로 악기 수업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요한이를 지도해 주시던 바이올린 선생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요한이 레슨을 해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요한이 혼자 그간 배웠던 곡들을 연습하고 있는데, 요한이에게도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귀한 선생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6. 아이들 건강과 박 선교사 치아 문제

1월에는 세 아이 모두 독감에 걸려 병원신세를 졌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고 집에서 쉬며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모두 건강을 회복해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이들은 아프면서 자란다고 하지만 이곳에서 아프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헤민이는 아파서 빠진 살을 다시 찌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박은지선교사는 식사를 하던 중 예전에 한국에서 치료 받았던 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의 20년의 세월 동안 잘 붙어있던 충전재가 떨어져서 난감했지요. 실력 있다는 치과를 수소문하여 치료를 받았지만, 몇 개월이 못되어 충전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치과에 가서 새롭게 치료를 받았는데, 부디 잘 버텨 주길 바랄 뿐입니다.